

부끄럽지 않는 삶 <유대인의 생활 철학 6 편>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부끄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타 종교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기독교의 예배는 <Pray>로 ‘신께 부탁드린다’ ‘신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에게 내 삶의 일부를 바치는 성격이 강하다. 기독교의 <기도>를 두단계로 나누면 잘못된 죄를 반성하고 용서받는 종교적 특성과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에 도움받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격이 담겨있다. 또 흔히들 기도의 순서를 다섯단계로 나누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 자신과 이웃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도와달라고 소망하는 중보와 간구를 하고, 그래도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형식을 갖춘다.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일단 하루 3 번씩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과 성지를 향해 무릎 꿇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유별스럽은 익히 알고들 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의식>이 믿음의 핵심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쌍방간에 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계약은 서로에게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조건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건은 선택받은 신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는 배움의 연장이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속한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다. ‘기도한다’의 히브리어는 <히트파렐>인데 그 의미는 ‘스스로를 평가한다’ ‘나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의미다. 유대인의 종교라는 의미는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대신해 인간이 무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인간들의 입지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든다. 하나님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절대자로 보느냐, 아니면 “갑”과 “을”관계의 계약 당사자로 보느냐는 주종관계냐, 동반관계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인 <구약>에 목숨을 거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대 기독교가 <신약>을 멀리하고 <구약>에 매달리는 것은 왜일까? 살만 하나까 <예수>가 귀찮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짜증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점 <예수없는 교회>가 많아진다고 한다. 또한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 훨씬 더 권위적이고 형식적이며 강제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유대인들이 현 시대에 와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열 때문이라고 한다. 일명 <헬리콥터 엄마>들인데 이 점은 <한국 엄마>들도 못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아이들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살린다> 라는 주관이다. <개성이 없는 획일화>는 현대 자본주의 교육의 숨은 함정 때문이기도 하다. 기회가 되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부자들의 음모>, 장하준 교수가 저술한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 가지> <나쁜 사마리아인> 들에서도 지적한 현대 교육의 함정을 말할 것이다. 그림자 정부는 세계인들이 짜여진 틀 속에서 정규화된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정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부자 되는 방법을 알기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어느 학교도 부자가 되는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목표는 짜여진 틀 속에서 일등하기를 원한다. 일류 고등학교와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일류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인기학과를 원한다. 우리 기성 세대도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모두가 동일한 교육을 받음을 인정한다.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도 없고, 한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어려운 과목들을 기억할 것이다. 사회생활하는데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죽은 지식>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자식이 남들과 다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주역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다. 그들 중에서 대학원은 커녕 대학교 조차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의외로 많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빌 게이츠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컴퓨터 분야의 천재가 되기까지 그의 엄마가 쏟아붓는 열정과 돈은 <일만시간의 법칙>의 대표 사례가 된다. 즉 누가 무엇이냐 하던지간에 내 아이만의 개성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탈무드>의 이야기 한편이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대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루는 랍비를 찾아가서 묻기를 “랍비님, 제가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저를 바보라고 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입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자신이 바보라고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은 랍비에게 다시 묻기를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왜 저를 바보라고 놀릴까요?” 랍비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리고보니 자네가 바보인게 맞는 것 같네.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자네는 바보가 맞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정녕 바보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개성이 뚜렷한 지성인인가? 묻는 자체가 바보인게지...